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
원예시설보험 개편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

기획정보

환경 관련 발자국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2013년 고령자 통계

동향 분석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

※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식품부,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**[수립과정]**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새로운 농정에 대한 **농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**
 -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및 지자체 공무원·전문가 심층토론 및 관계부처 협의와 「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(' 13.9)를 거쳐 발전 계획 확정
- **[중점사항]** 새 정부 농정비전(**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**) 구현 및 국정과제 구체화 역점
 - **(새로운 농정 패러다임)** 개별경영체 중심의 생산성·경쟁력 향상 정책이 농업·농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정목적으로 효율성·형평성·국민행복을 동시에 고려
 - **(새로운 농정)** 패러다임의 변화, 대내외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의 통합적 농정 추진
 - **(추진정책)** 농정의 3대(경쟁력·소득·복지) 축을 중심으로 5대 정책,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 선정
- **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계획 마련**
 - 기존사업(' 14년 신규 포함)의 경우 ' 14년 예산 및 ' 13년~' 17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

□ 5대 정책분야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

1)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

- **[목표]** 농산물/친환경농산물(' 12: 46.4/3조 원 → ' 17: 50/5.7) 공급 및 곡물자급율(' 12: 23.6% → ' 17: 30%) 제고

- [중점사항]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‘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’에 우선
- [주요과제 및 방향] 농업 생산기반 확충,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,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19개 과제
 - 생산 인프라는 신규개발 위주에서 농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 제고 중심으로 전환
 - 친환경농업의 차별성을 강화하고, 축산은 환경부담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
 - 농축산물 수급은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관리로 전환

2) 기술농업과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

- [목표]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가 연평균 3%이상 성장(’02~’12: 연평균 1.2%)
- [중점사항]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농정에서는 작지만 강한 차별적 농업 육성
- [주요과제 및 방향] ICT·BT 융복합,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육성,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22개 과제
 - 농업과 ICT·BT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
 - 전국단위 일률적 정책을 벗어나 지역농업 허브 구축
 - 농업과 가공유통농촌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
 - 식품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, 농식품(’12: 56억 불 → ’17: 100) 및 농자재(’12: 7.5억 불 → ’17: 10) 수출 확대

3)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

- [목표] 농외소득 증가율 연평균 7.5%(’12, 4.6%) 달성
- [중점사항] 농자재 가격 상승, 개방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고령화·양극화에 대응하여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새로이 마련
- [주요과제 및 방향] 농가경영여건 개선, 사전예방적 위험관리 및 공동체 경영과 소득원 창출 등 5개 분야 22개 과제

- 저성장 기조 및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경영여건 개선
-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강화
- 겸업·영세·고령농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
- 쌀·밭작물제의 확대와 함께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

4) 자조·자립·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

- [목표] 농촌인구를 현재 17.7% → 19%까지 증대
- [중점사항] 도농 간 복지 및 삶의 질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 간 일률적 서비스 대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 도입
- [주요과제 및 방향] 지역행복생활권 구축, 생활 체감형 복지 향상 및 도농상생 기반 농촌활력 창출 등 5대 분야 20개 과제
 - 농촌마을과 인접도시 등과의 연계·협력 촉진
 - 부처 간 협업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
 - 주민주도의 자율적 복지 공동체 활성화
 - 도시민의 귀농·귀촌 지원 강화

5)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

- [중점사항] 농정이 농업인 및 지자체 등 농정의 주요 주체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
- [주요과제 및 방향] 쌍방향 맞춤형 농정, 지방농정 및 농정 거버넌스 등 5대 분야 17개 과제
 - 농업경영체 DB,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초통계 정비를 통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 지원
 - 사·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(’14) 및 종합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 활성화
 - 농업계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력 및 역할분담 강화

주요 농정 이슈_2

원예시설보험 개편

※ 본 자료는 2013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확 바뀐 원예시설보험, 10월 1일부터 판매시작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**[개편 중점내용]** 농가편의 차원에서 가입서류 대폭 간소화, 대상품목 사업지역·보장범위 크게 확대
- **[재정확충]** 농업재해보험 정부예산안 규모는 농업재해보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해 2,701억 원 반영
- **[기대효과]** 최근 돌풍, 폭설, 침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

□ 주요 개편 내용

- **[보험대상 확대]** 품목: 11개 → 14, 시설: 부대시설 포함
 - (추가품목) 부추, 시금치, 상추
 - (추가시설) 부대시설(관수시설, 양액재배시설, 보온시설, 난방시설 등)
- **[전국사업 전환]**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하였던 9개 시설작물 및 시설하우스를 전국 판매사업으로 전환
 - (전국 판매전환 품목) 시설수박, 시설딸기, 시설오이, 시설토마토, 시설참외, 시설꽃고추, 시설호박, 시설국화, 시설장미
- **[시범사업지역 확대]** 51개 시·군 → 70
- **[보험서류 간소화]** 시설물과 시설작물을 통합하여 청약서 작성
 - 청약서 1, 관련서류 6개
- **[가입시기확대]** 연 1회(8~11월) → 2(4~5, 10~11월)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

※ 본 자료는 2013년 10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전반적 동향

- **[소비자물가지수]** 107.9(2010년=100), 전월대비 0.2%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0.8% ↑

<연도별 9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(2010=100, %)>

구 분	연도별 9월 동향					최근 월별 동향			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	2013.3	4	5	6	7	8	9	
지 수	97.8	101.1	104.9	107.0	107.9	107.4	107.3	107.3	107.2	107.4	107.7	107.9	
전 월 비	0.1	0.8	-0.1	0.7	0.2	-0.2	-0.1	0.0	-0.1	0.2	0.3	0.2	
전년동월비	2.2	3.4	3.8	2.0	0.8	1.3	1.2	1.0	1.0	1.4	1.3	0.8	
전년동기비	2.9	2.9	4.0	2.3	1.3	1.4	1.3	1.3	1.3	1.3	1.3	1.3	

- **[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]** 106.9, 전월대비 0.4%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1.6% ↑
- **[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]** 105.8, 전월대비 0.3%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1.3% ↑
- **[생활물가지수]** 107.0, 전월대비 0.2% 상승
 - ※ 전년 동월대비 0.1% ↓
 - (식품) 110.4,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7% ↓)
 - (식품외) 105.5, 전월대비 0.1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1% ↑)
- **[신선식품지수]** 111.5, 전월대비 2.2% 하락
 - ※ 전년 동월대비 7.8% ↑
 - (신선어개) 108.1, 전월대비 1.6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9% ↓)
 - (신선채소) 105.5, 전월대비 1.4% 하락(전년 동월대비 12.7% ↓)
 - (신선과실) 120.6, 전월대비 3.2% 하락(전년 동월대비 6.5% ↓)
 - (기타신선식품) 94.6, 전월대비 3.7% 하락(전년 동월대비 14.5% ↓)

□ 농축수산물 물가동향

○ [농축수산물 물가지수] 113.3, 전월대비 1.0% 하락

※ 전년 동월대비 3.8%↓

- (농산물) 117.1, 전월대비 2.0% 하락(전년 동월대비 7.4%↓)
- (축산물) 107.0, 전월대비 1.5% 상승(전년 동월대비 2.2%↑)
- (수산물) 111.3, 전월대비 1.3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7%↑)

〈품목성질별 동향(2010=100, %)〉

구 분	품목수	가중치	2012.9월				2013.9월			
		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9월)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9월)
총 지 수	481	1000.0	107.0	0.7	2.0	2.3	107.9	0.2	0.8	1.3
농축수산물	71	77.6	117.8	5.2	4.1	3.1	113.3	-1.0	-3.8	0.0
농 산 물	51	43.5	126.5	8.3	9.7	8.6	117.1	-2.0	-7.4	1.0
축 산 물	6	22.1	104.7	1.4	-6.2	-7.6	107.0	1.5	2.2	-3.2
수 산 물	14	12.0	110.5	-0.2	1.7	3.0	111.3	-1.3	0.7	1.6

〈2013년 9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〉

단위: %

구 분	전월대비	전년 동월대비
상승 품목	쇠고기(국산3.8), 토마토(9.5), 파(7.0), 쇠고기(수입3.4)	쌀(7.7), 바나나(22.5), 배추(11.3), 조개(12.8)
하락 품목	포도(-21.2), 고구마(-16.4), 고춧가루(-6.8), 부추(-22.5), 풋고추(-12.6), 오이(-11.2)	고춧가루(-26.9), 파(-37.5), 상추(-49.8), 호박(-46.9), 오이(-34.7)

기획정보

환경 관련 발자국의 개념 및 국내의 동향

※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.

□ 개념 및 정의

1) 개념과 종류

- 발자국이란 **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**이며, 이는 **인간이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환경파괴가 시작**된다는 개념
 - 최초로 사용된 지표는 생태발자국이며, 그 외에 탄소발자국 및 물발자국이 등장, 인간이 남기는 환경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 소위 **환경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도입**되기 시작
- 환경부문에서의 발자국에는 생태 발자국, 탄소발자국, 그리고 물 발자국으로 분류

〈주요 발자국의 비교〉

구분	단위	내용 및 특성	비고
생태발자국	gha	• 생태 생산 공간의 이용을 나타내는 양 ⇒ 생태 생산 공간의 부족 문제(토지자원)	• 생산공간은 고정 • 다른 장소에서 상쇄 불가능
탄소발자국	ton	•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나타낸 온실가스의 양 ⇒ 기후 변화 문제(대기자원)	• 탄소의 발생 및 제거 장소 관계무 • 다른 장소에서 상쇄 가능
물 발 자 국	m ³ /yr	• 담수의 이용을 나타내는 양 ⇒ 담수의 부족 문제(수자원)	• 물은 장소와 시간에 지배 • 다른 장소에서 상쇄 거의 불가능

- 생태발자국, 탄소발자국, 물발자국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**부족한 자원의 현재의 상황을 파악**하는데 필요
 - 에너지 절약, 물 절약, 간소한 생활을 통해 이들 발자국의 크기를 줄여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요

2) 정의

- (생태발자국) 생산, 소비, 여가 활동이 **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**이나, **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에 남겨지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(토지, 해양, 내수면 면적)로 환산**한 지표
 - ※ 생태발자국 지수가 높을수록 생태환경의 훼손을 의미

- (탄소발자국) 인간이 **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총량**으로,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, 전기, 물품 등에서 작간접적으로 발생 하는 모든 배출량을 포함
 - ※ 탄소발자국은 **인간의 전체 생태발자국 중 54%**이며, 가장 빨리 증가하는 요소, 1996년 이후 **11배 증가**(물발자국 네트워크, <http://www.footprintnetwork.org>)
- (물발자국) **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**에서 **작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(가상수*)의 총량****으로, 가상수의 확장개념으로 제품을 생산, 소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 나타내는 지표
 - ※ 가상수(Virtual Water): 1998년 런던대 토니앨런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'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물'이며, 식품과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을 거쳐 소비될 때까지 들어가는 물의 총량. UN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20억m³의 가상수 수입(세계 5위, 1,179m³/인의 물 소비)
 - ※※ 소비하는 곡물의 양, 계란의 수, 고기와 과일 소비량, 하루 중 마시는 커피의 양과 제품 소비액 등 사용량에 실제 눈에 보이는 물의 사용량을 합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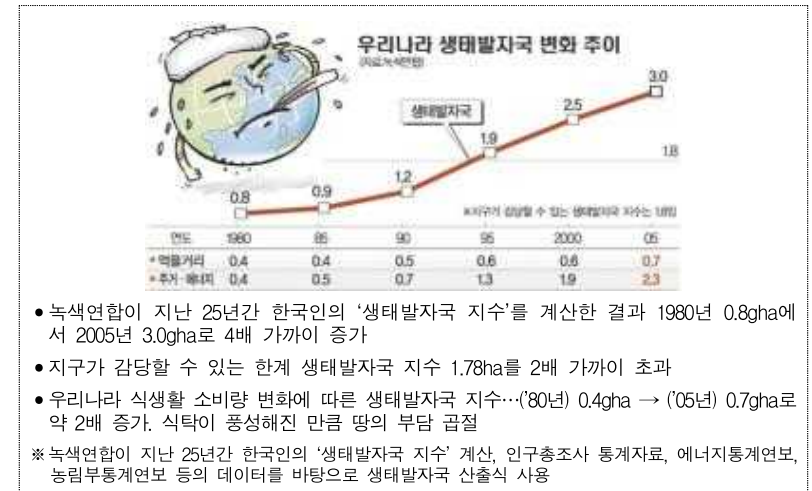
□ 생태발자국

1) 도입배경

-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**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리엄 리스**가 **창안한 개념**으로 **인간의 자원이용 강도를 측정하고 알리는 지표**
- 세계적으로 **60% 정도의 생태계 서비스(지원·공급·조절·문화서비스)가 저하**되거나 **지속 가능하지 않게 이용***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
 - ※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(ma), 2005
- 최근 국제 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, 이미 자원 소비 규모가 70억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며,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태 자원에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
 - ※ 인류는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인프라나 경제, 생활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갭이 더 이상 넓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
- 세계야생동물기금(WWF), '살아있는 지구 보고서 2012', 전 세계 생태 발자국은 **1966년 이래 약 2배 정도 증가**, 현재 인류의 자원소비 형태로는 **2030년 지구 2개가 있어도 부족**한 수준이라고 경고
 - ※ 잘사는 나라, 가난한 나라의 생태발자국 각각 5.6gha와 1.14gha로 5배 격차
 - ※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4.6gha로 이는 세계 149개국 가운데 29위, 세계 평균 2.7gha와 비교해 1.7배

2) 국내외 동향

- 생태발자국은 **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**가 되는데 영국, 미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 등에서 **국가와 지역단위의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**에 활발히 활용
 - ※ ex) 영국의 카디프시·요크시 등 대표적...영국의 지자체들은 도시 계획과 활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생태발자국 활용, 분석을 통해 토지유형별, 소비 부문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
- 국제 발자국 네트워크(2010년), **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4.87gha**이고, 우리나라의 적정 생태용량(Bio-Capacity)은 1인당 0.33gha로 **14배가 넘는 소비 수준**
 - ※ 생태발자국은 세계 1인당 1.78gha, 이러한 생태발자국의 크기대로라면 2033년엔 지구가 2.08개는 있어야 인간 소비 감당, 지구의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가 인간이 소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계치를 넘은 게 1986.12.31일 이후, 이미 인간은 '생태적 부채' 상태



- 세계야생동물기금(2012), 현재 생태발자국 계정을 보면, **지구 1.5개 분량의 자원 소비***, **생태발자국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**이지만 1인당 생태발자국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적으며, 모든 세계인이 중국의 일반 주민처럼 산다면 **1.2개의 지구가 필요한** 상태
 - ※ 한 해 인류의 생태발자국은 176억gha, 지구 재생한도는 120억gha

□ 탄소발자국

1) 도입배경

- 탄소발자국이란 용어는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**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리엄 리스**가 개발한 개념인 생태발자국이라는 용어에서 인용, 최근에는 탄소발자국 이외에 물발자국, 에너지발자국 등의 파생용어 등장
- 제품에 생산, 소비, 폐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라벨로 표시하는 것이 탄소라벨이며, 영국의 제조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**카본 트러스트(carbon trust)**가 **탄소 라벨링의 시초**
 - ※ 2001년 카본 트러스트의 참여자들이 탄소가 배출된 자취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**발자국 모양을 도식화**
- 2006년 영국의회 산하의 과학기술처(POST)에서 고안, 사람의 삶과 생산 소비 등 여러 활동에서 작·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(CO₂)의 총량을 수치화하여 **탄소 kg** 내지는 **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 수**로 나타냄.
- 탄소발자국은 **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등 세계적으로 이슈화**되면서 **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발전**
 - 전 세계적인 이슈로 국가적 지역적 배출이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 관심과 공동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
-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웰빙*을 넘어 로하스**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근 1~2년 사이에 **탄소발자국에 대한 관심 급증**
 - ※ 육체적·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
 - ※※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줄임말로, 건강과 환경,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션을 의미
- **온실가스**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**1차적**으로 **기후변화 발생**시키고, 기후변화는 **기상재해 발생**시켜 우리가 먹는 **농산물의 수급불안정 초래**

2) 국내외 동향

-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의 발생은 탄소발자국으로 산정 가능하며, 탄소발자국이 큰 제품 또는 공정은 온실가스의 발생을 많이 유발
- ‘탄소발자국’ 제도는 **2001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**, 그 이후 프랑스 등 유럽으로 확산되고 현재 일본(2008년), 태국 등에서도 시행

- 2011년 **우리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**은 **6억 1천만 톤**, 2010년에 이어 **세계 7위**
 - 지난 20년간(’90년~’11년)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44% 증가해 **증가속도가** 중국(287%), 인도네시아(210%), 인도(198%)에 이어 **세계 4위**
 - ※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(2011년 기준)은 약 339억 톤, 1990년 대비 49% 증가, 세계 1위 중국(97억 톤), 2위 미국(54억 톤)(기후변화행동연구소, 2011년)
- 우리나라는 **2009년 ‘탄소발자국’ 제도 도입**해 환경부가 총괄, 농업 부문에서는 2011년부터 도입

• 농식품부, (2011.4월) 「농림수산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」 수립, 2020년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5% 감축 → (2011.6월) SMART GREEN FOOD 홈페이지 개설, 저탄소 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→ (2012.5월) ‘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’*과 ‘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’** 추진

※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수행한 농업경영체에게 감축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제공, 이를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

※※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킨 우리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부여, 유통·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

- 현대인들은 한 달 평균 300~1,000kg의 탄소발자국을 남기며, 에너지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한명은 일년 평균 **12.6톤 탄소발자국 생성**

• 종이컵 1개의 탄소발자국은 11g,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 약 120억 개에서 발생 하는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4,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함.

• 서울시내 25km를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승용차는 1인당 평균 약 5kg, 버스는 0.4kg, 지하철은 0.01kg의 탄소발자국 생성

□ 물발자국

1) 도입배경

- 물발자국이란 개념은 2002년 네덜란드 트벤테대학교 **아르헨 호스트라(Arjen Hoekstra)** 교수가 ‘가상수 무역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’에서 소개
- **기후변화로 물부족 문제가 심화**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 발자국이 새롭게 조명

• 우리나라는 물 과소비로 인해 1인당 물발자국 1,629㎥로 인구 500만 명 이상 102개 국가 중 40번째(유네스코 보고서, 2011년)

• 기온 1℃ 상승 시 농업용수 수요량이 10% 증가, 2060년 우리나라에서 최대 33억 톤의 물부족 전망. 물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(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(IPCC) 보고서)

- 최근 유엔총회에서는 **깨끗한 물과 위생은 인간의 권리**임을 선언했으며, 세계는 ‘탄소발자국’을 계산하듯 ‘물발자국’을 계산하기 시작
- 인류의 **물발자국 중 약 85%가 농산물의 소비와 관련**이 있으며, 공산품은 10%, 가정에서의 물 사용은 5%에 불과
- 다량 물사용 제품(ex. 세탁기, 변기 등) 시장의 글로벌화, 제3세계의 물부족 가중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물 자원이용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제품의 물 사용량 및 물 사용효율 등과 같은 정보제공이 필요

2) 국내외 동향

- 물발자국은 담수의 양을 나타내는 청색, 토양에 저장된 빗물인 녹색,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인 회색으로 구분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소비에 따라 적용하는 간접적인 물과 직접적인 물로 분류
- **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홍콩 등** 제품의 물 소비효율, 소비유량을 보여 주는 라벨인 **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(WELS) 라벨 운영 (2005년)**
- 물발자국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최근 논의동향은 국제표준화 작업이 몇 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
 - 제3차 세계물포럼(교토, 2003년)에서 가상수의 교역 및 지정학에 관한 세션 개최, 2009.5월 “물발자국 보고회” 개최 후 물발자국의 표준화에 착수, 현재 Working Draft작업 진행
 - ※ 세계물포럼에서 120개 세션 중 10개 이상의 세션 개설('12.3월, 프랑스)
- **2012.7월 농식품부·환경부에서 관련 연구 본격 착수**, 현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, 신뢰할 만한 **국가 DB 구축이 필요**

<UNESCO-IHE*에서 발표한 주요 농산물의 물 발자국>

▲사과...210 ℓ/1개(300g), ▲쌀...3,400 ℓ/kg, ▲보리...1,300 ℓ/kg, ▲콩...1,800 ℓ/kg,
 ▲감자...900 ℓ/kg, ▲옥수수...900 ℓ/kg, ▲돼지고기...4,800 ℓ/kg, ▲닭고기...3,900 ℓ/kg,
 ▲달걀...200 ℓ/kg(60g) 출처: www.waterfootprint.org

*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frastructural Hydraulic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:
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적 물·환경 교육기관

<기타 발자국>

- **전자발자국(Electronic Footprint)**...사람이 남기는 흔적을 전자장치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
 ex) 교통이 혼잡한 곳을 알려주는 전자교통 안내판이나 거리의 방법 카메라
- **식량발자국(Food Footprint)**...생태발자국에 속하는 것으로 인구에 대한 i) 식량 생산용 토지 (초지를 포함한 농지), ii)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삼림지, iii) 어류 생산 영역인 해양 등의 면적을 고려하는 것
- **주택발자국(Housing Footprint)**...주택이 차지한 토지면적, 주택건설과 가구 등에 사용된 목재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던 삼림지의 면적, 주택의 건설·유지를 위해 생긴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해양의 면적 등을 포함
- **재화 및 서비스발자국(Goods and Services Footprint)**...물품의 제조, 운송 및 처리에 관련된 탄소의 배출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해양의 면적, 상업 활동에 소요되는 토지 면적, 펄프와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삼림면적을 포함

※ 참고문헌

-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_「물발자국(Water Footprint)속에 기후변화 대응책이 보인다」(2011.7.22.)
-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, 첫 걸음을 내딛다」(2012.5.12)
-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_「RRI 포커스」“탄소발자국 저감, 녹색정화 기술로부터”(2013.4.8)
-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_「물발자국(Water Footprint)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」(2012.12)
-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_「RRI 포커스」“물발자국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 대안을 찾아서”(2012.8)
- 해양경찰청_「탄소발자국 -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지침서」(2009.4)
- 한겨레 보도자료_「인류, 8월20일부터 ‘생태 채무자’됐다」(2013.8.22)
- 충북일보 보도자료_「누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?」(2013.6.2)
- 한겨레 보도자료_「20년 뒤 세계, 지구 2개는 있어야 소비 감당한다」(2013.1.11)
- 인데일리 보도자료_「미래예측, 10년 후 물부족 얼마나 심각해지는가?」(2012.9.25)
- 연합뉴스 보도자료_「농업 분야 ‘물 발자국’ 도입 논의 심포지엄」(2012.8.7)
- NEWSis 보도자료_「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 세계 29위...세계평균 1.7배 ↑」(2012.6.7)
- 이투데이 보도자료_「전기도 평평 물도 평평 쓰는 대한민국」(2012.3.30)
- 중앙일보 보도자료_「샤워기 틀고 이 닦는 한국, 1인당 쓰는 물 영국의 2배」(2012.3.22)
- 연합뉴스 보도자료_「사과 1개 생산에 얼마나 물이 필요할까」(2011.7.22)
- 헤럴드경제 보도자료_「사과의 ‘물발자국’을 아시나요?」(2011.7.22)
- 시사인전 보도자료_「세계 물의 날과 물의 위기」(2010.3.23)
- 경향신문 보도자료_「“지자체가 ‘생태발자국’ 관리해야」(2009.3.27)
- 경향신문 보도자료_「한국처럼 자원쓰면...지구 하나 더 필요」(2006.11.24)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※ 본 자료는 9월 30일~10월 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산물값 큰 폭 하락...장기와 우려



- 추석 이후 과일은 물론이고 **임채소류·과채류 등 농산물 전체 가격 폭락**. 채소·과일 산지가격이 폭락한 반면 **소매가격**은 절반만 내려 **'풍년기근'**. 특히 4년 만에 여름 **태풍 없어 생산량 늘고 소비 부진 겹쳐 가격 폭락 현상 장기화 우려**. ▲10.3일, aT 농산물유통정보(KAMIS), 10.1일 29개 채소 및 과일의 **도매가격**은 지난해 10.1일보다 평균 **37.3% 하락**. 반면 **소매가격**은 **18.7% 하락**. ▲**심상찮은 농산물 가격 하락세**...채소류 추석 전보다 30%이상 떨어져. ▲**소비부진에 생산량 증가 겹친 탓**...매년 추석 이후에는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값이 하락했다가 대략 10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곤 했지만 올해는 명절 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예년과 달라. ▲**농가, 품질 위주 출하로 시세 올라야**...양보다는 품질 위주의 출하, 이른바 '머리 시세'로 불리는 상위 등급 가격이 잘 나와야 전체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, 철저한 선별 등을 통한 품질 높이기에 주력
※ 풍년으로 채소·과일의 출하가격이 내려 농민이 손해를 보고, 소비자는 충분히 가격이 내리지 않은 농산물을 구입해 손해라는 뜻

자료 : 농민신문(2013.10.2.) / 서울신문(2013.10.4.)

□ 미국산 쇠고기, 원산지 어위표시 죄다

- 9.29일, 농식품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'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' 자료에 따르면,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8월 말까지 시중 음식점 등이 **국산,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**는 **451t(1,281건)**. ▲연도별... (2008) 14t(97건) →

(2009) 58t(210건) → (2010) 153t(251건) → (2011) 67t(261건) → (2012) 83t(281건)* → (2013.8월 현재) 76t(181건). 미국산 쇠고기의 허위표시가 급증한 이유는 **미국산 쇠고기 안전성**에 대한 **국민의 불신감 여전**. 정부의 철저한 단속 필요

※ 2012.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다시 급증
자료 : 경향신문·한겨레·헤럴드경제·NewSis·YTN(2013.9.30.) / 농민신문(2013.10.2.)

□ 김치 중주국에서 수입국 전략 '위기'

- 이운룡 의원, '김치 수출수입 현황 분석' 결과, 올 들어 8월까지 국산 김치수출액 6,095만 달러(전년 동기대비 14.2%↓), 같은 기간 김치수입액 6,861만7,000달러(전년 동기대비 12.4%↑), **무역적자액 765만8,000달러(약 83억 원)**로 대중국 수출중단일본 엔저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**김치 중주국이 아닌 수입국으로 전략**. ▲**대중국 수출 중단**...중국이 한국산 김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(CODEX)을 적용하지 않고 '100g당 대장균 수가 30마리 이하여야한다'는 자국의 '파오차이(절임채소)위생기준' 적용으로 올 들어 중국 수출실적 없으며*, 중국정부에 김치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측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합의 도출 못해. ▲**일본 엔저 장기화**...국내산 김치 수출이 가장 많은 일본(2012년 기준 전체수출액 대비 79.3%)의 경우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인해 지난달 기준 수출액 4,580만 달러(전년동기 대비 **20.1%↓**). ▲**김치 무역적자 해소 방안**...주력시장인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**시장을 다변화하는 수출마케팅 전략수립**, 저가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는 **김치 고품질 차별화 정책** 시급, 특히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김치위생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**강력한 외교적 대응**도 병행
※ 중국산 김치 수입액: ('09년) 6,633만 달러 → ('12년) 1억 1,082만 달러, 약 2배↑
자료 : 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(2013.9.30.) / 원예산업신문(2013.10.2.)

□ 아시아지역 과수 신선도저하로 폐기량 30%

- **아시아지역의 과수 폐기량**이 **유럽 등 농업선진국(18%)에 비해 2배** 가량 높은 **30% 육박**, 신선도 유지하는 '스마트프래쉬'에 대한 관심 고조. 9.5일, 홍콩에서 개최된 '아시아과수공급비즈니스포럼(Asia Fruit Congress)'

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, **아시아지역의 과수는 보관 중 8%, 유통단계에서 8%, 그리고 소매단계에서 15%** 등 총 30%의 과실이 신선도저하로 폐기. ‘스마트프레쉬’의 처리효과 관련 네덜란드 A.C 닐슨 리테일사가 시행한 조사 결과, **‘스마트프레쉬’를 사용할 경우 신선도유지 25% 향상과 10주간 동안 12% 판매량 증가.** ‘스마트프레쉬’를 처리한 과일과 무처리 과일의 썩는 정도를 29일 동안 같은 온도에서 비교실험 결과, 무처리 과일은 20일 이내 100%가 썩었지만 ‘스마트프레쉬’를 처리한 과일은 30% 정도만이 썩고 나머지 70%의 과일은 신선도 유지

※ 현재 ‘스마트프레쉬’는 한국((주)경농)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해당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효과 실험과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검사 과정 준수. 특히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제품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41개국에서 사용

자료 : 한국농업신문(2013.10.1.)

□ 농식품부 ‘광우병 위험무시국’ 지위 신청키로

○ 농식품부, 9.26일, **소해면상뇌증(BSE·광우병)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**하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**‘BSE 위험지위’ 상향 조정 신청**하기로. 우리나라는 2010년 OIE로부터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에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. 광우병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여부는 OIE 특별 작업반과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2014.5월 OIE 총회에서 결정. **광우병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**하면 앞으로 **소와 쇠고기 제품 수출 향상, 광우병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**받는 계기 마련

※ OIE의 ‘BSE 위험지위’는 ▲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최고등급인 위험무시국 ▲위험통제국 ▲미결정국의 세단계로 분류

자료 : 농민신문·농축유통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3.9.30.) / 농수축산신문(2013.10.1.)

□ 농촌지역 도시가스 혜택 소외

○ 박완주 의원,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‘전국 시·군·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’에 따르면, 전국 232개 시·군·구의 평균 **도시가스 보급률은 74.5%, 미보급 지자체 48곳으로 96만 가구 이용 못해.** ▲도시가스 보급률...**제주 5.3%**로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**가장 낮고**

이어 전남(35%)·강원(37.5%)·충남(48.9%)·세종(49.4%)·경북(50.7%)·경남(53.3%) 순. ▲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는 경북 12곳으로 가장 많았고, 강원·전남은 11곳, 반면 **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서울·경기 등 수도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자체 전혀 없어***. 결국 대도시는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**농어촌** 등의 지역에서는 **가격 높은 LPG·석유 사용으로 ‘부담’ ****

※ 이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배관설치 비용 때문

※※ 김춘진 의원,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‘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평가’, 농어촌 주민 49.1% 연료비가 비싼 등유보일러 사용,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률은 1.1%에 불과. 특히 등유보일러의 경우 난방비 2배, 난방기간이 긴 산간지역의 경우 그 비용의 차이가 4~5배 이상

자료 : 농민신문(2013.10.2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3.10.3.)

□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국, 수입량 급증으로 세계 2위 쌀 수입국

○ 월스트리트저널(WSJ), 9.29일, 국제곡물협회(IGC) 2013년 9월 곡물시장 보고서 인용, **중국의 2014년 쌀 수입량 220만t**(2013년 대비 10%↑) 전망. 3년 연속 쌀 수입량이 200만t* 넘어 나이지리아에 이어 **세계 2위 쌀 수입국.**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60만t 이하 유지. ▲**쌀 수입량 급증 원인...** **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, 늘어난 쌀 소비, 국내 쌀 가격 상승**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. 올해 중국은 1억4,300만t의 쌀 생산했지만 내년 **중국 동부, 중부 지역 곡창지대에 가뭄**이 심해져 **생산량 200만t 가량 감소 예상**, 반면 **소비량 1억4,200만t**, 올해 보다 증가 전망. 한편 **중국 정부,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가격 꾸준히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수입쌀 수요 증가.**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쌀은 t당 500달러, 베트남산 쌀은 t당 360달러, 태국쌀은 t당 425달러

※ (2012년) 250만t → (2013년) 230만t

자료 : 아시아경제·파이낸셜뉴스(2013.9.30.)

□ 2014년 예산안...농업·농촌 관련 타부처 사업 내용

- 보건·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시설장바인건비를 지원하는 ‘의료취약지 지원사업’ 예산 확대*
 - ※ ('13) 39억5,000만 원 → ('14) 52억 원
- 65세 이상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추진
 -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의 50% 건강보험에서 지원. 지원 대상은 2015년 70세 이상,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
- 대 중증질환(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성 질환)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내년에는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장치(MRI) 검사로 확대
 -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2015년 수술, 2016년 유전자 검사로 확대해 1인당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2013년 연간 94만 원 수준 → 2016년 34만 원 선
 - ※ 혈액암(백혈병) 환자...한달 약값 400만 원 → 20만 원
-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개선, 자원 재활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농비닐 쓰레기 공동집하장 1,000곳 설치
 - ※ ('14) 15억 원 예산, 2016년까지 공동집하장 7,880곳 확대
- 결혼이민자 생활지도사 센터 배치
 -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 학업·취업·금융·행정기관 이용 등 생활 정보 제공
-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
 - 지원 대상은 1학년, 2015년에는 1~2학년, 2016년에는 1~3학년, 2017년 1~4학년으로 확대. 2014년 신입생이 되는 셋째 이상 아이는 4년 내내 정부 장학금 1인당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
- 관내에 영화관 없는 109개 시·군에 단계적으로 ‘작은 영화관’ 개설
 - 기존의 문예회관·도서관·체육시설을 고쳐 들어서는 영화관은 주제별 기획영화도 연간 5회 상영
 - ※ 39억5,000만 원 투입, 강원 삼척시·철원군, 경남 남해군, 인천 강화군 우선 혜택
-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범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*
 -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, 주민들은 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를 통해 법률서비스 혜택
 - ※ 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(무변촌)의 읍·면·동마다 변호사 1~4명을 배정해 전화·팩스·인터넷으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

자료 : 농민신문(2013.9.30.)

연구 지원 정보

2013년 고령자 통계

※ 본 자료는 2013년 9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3 고령자통계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인구

- **[고령인구비율]**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**12.2%**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
 - ※ 고령인구비율 전망: ('13) 12.2% → ('30) 24.3% → ('50) 37.4%
 - ※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비율 전망: ('13) 0.9% → ('30) 2.5% → ('50) 7.7%
- **[고령자성비]** 70.7, 2030년에는 81.1로 높아질 전망
 -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
- **[노년부양비]** 16.7,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 부양
 - ※ ('13) 6명 당 1명 → ('30) 약 5명 당 1명 → ('50) 약 1.4명 당 1명
- **[노령화지수]** 83.3, 유소년인구(0~14세)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83명
 - 2017년 104.1, 유소년인구 초과 전망
- **[지역별 고령화율]** 높은 지역은 **전남(21.4%)** > 전북(17.5%) > 강원(16.4%) 등의 순, 반면 낮은 지역은 **울산(7.8%)** > 대전·경기·인천(9.7%) 등의 순
 - 전남, 전북, 경북, 강원, 충남, 충북 6개 도는 **고령인구 비율 14% 초과**
 - 시군구별로 ‘전남 고흥군’이 33.8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은 ‘경북 의성’과 ‘경북 군위’ 순
- **[고령화가구비율]** 19.5%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
 -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현재 총 가구의 6.9% 차지, 향후 2035년에는 15.4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- **[기대수명]** 2011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**남성 17.4년, 여성 21.9년**
 - (주요 국가별 2010년 기대수명) 일본이 83.5세로 가장 높고, 프랑스 81.7세, 한국·독일·영국이 80세 수준

□ 노동 및 복지

- [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] 30.7%, 전년대비 1.2%p 증가
 - 남성 고령자(41.6%) > 여성 고령자(23.0%)
- [취업의사] 고령층(55~79세) 인구의 10명 중 6명은 취업 희망
 - (일자리 선택기준) “일의 양과 시간대(26.0%)”가 가장 높았고, 다음은 “임금수준(24.8%)”, “계속 근로 가능성(18.8%)” 등의 순
- [임금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]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 급여를 100.0으로 했을 때, 2012년 현재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은 77.7
 - 남성 (86.4) > 여성 (53.1)
- [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*] 2012년 기준 고령자의 비율은 28.9%
 - ※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
- [공적연금 수급자] 2012년 기준 고령자의 비율은 34.8%
 - 연금수급자 비율 노령연금이 87.8%로 대부분 차지, 다음은 유족연금 (11.6%) 등의 순
- [연금 수령 경험] 2013년 기준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고령층(55~79세)은 511만5천 명(46.9%)
 - ※ 연금 수령: 남자 51.9%, 여자 42.4%
 - (월평균 연금 수령액) 39만 원, 연금 수령자의 81.8%가 “50만 원 미만”을 받았으며, 이 중 “10만 원 미만” (36.4%)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.

- 고령, 고령자·65세 이상(고령인구비율, 고령자성비, 노년부양비, 노령화지수, 지역별 고령화율, 고령화가구비율, 기대수명,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공적연금 수급자, 연금 수령 경험)
- 고령층·55~79세(취업의사, 일자리 선택기준)
- 고령임금노동자·60세 이상(임금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)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